

報酬分配原理의 選擇에 미치는 狀況規範的 要因과 印象管理的 要因의 效果

崔 光 善
慶北大學校 心理學科

본 연구는, 衡平 혹은 平等을 分配公正의 規범으로 하는 두 가지의 상황에서, 보수분배원리의 選擇에 미치는 상황규범적 요인과 인상관리적 요인의 效果를, 자기의 注意의 초점이 자기의 사적인 측면 혹은 공적인 측면에 향하여져 있는, 달성도가 다른 二者에게서 밝혀보려고 하였다. 또 상황규범·개인의 달성도·선택되어진 분배원리가, 그 選擇에 대해 느끼는 제3자의 공정감, 이기성 및 타인에 대한 자기제시 등의 인지에 미치는 效果를 아울러 검토했다. 실험 I과 실험 II의 각각 24명의 피험자는 (1) 달성정도의 고저 × (2) 상황적 規범의 4 조건 중 한 조건에 할당되었다. 실험 III의 피험자는 전문대생 176명이었다. 주요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실험 I에서는,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사적인 측면에 향하도록 조작된 피험자는, 각자의 상황적 規범에 따라 분배원리를 選擇했다. 실험 II에서는,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공적인 측면에 향하도록 조작된 피험자는, 비이기적이고, 자기제시적인 분배원리를 選擇했다. 실험 III에서는, 상황규범과 일치하는 분배원리의 選擇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은 選擇보다 공정하다고 평가되었고, 또 고달성도 성원의 평등원리 選擇 및 저달성도 성원의 형평원리의 選擇은 다른 選擇보다도 공정하고, 비이기적이고, 타자에 대한 자기제시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結果들은 본 연구에서 조작된 요인간의 관계에서 고찰되었다.

종래, 分配公正(distributive justice)의 연구에서, 주로 衡平(equity)·平等(equality)의 두 가지의 분배원리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選擇되어 지는가에 대하여, 「공동으로 과제활동을 행하고, 그 結果로 얻은 보수를 집단성원이 서로 분배한다」고 하는 실험절차가 많이 쓰여져 왔다. 그 結果, (1) 연대성이 강한 친우사이에서는 평등원리가, 경제지향성이 높은 타인사이에서는 형평원리가 각각 選擇되어 진다고 하는 規範的인 說明(Deutsch, 1975 ; Lerner, 1975 ; Sampson, 1975)과 (2) 타자에의 自己提示(self-presentation)를 위하여 고달성도의 성원은 평등원리를, 저달성도의 성원은 형평원리를 選擇한다고 하는 印象管理的(impression management)인 說明(Shapiro, 1976 ;

Reis & Gruzen, 1976)이 제시되어 왔다. 즉 이들 두 가지의 설명에서 분배 원리의 선택을 규정하고 있는 요인은, 규범적인 설명에서는 상황적인 규범, 인상관리적인 설명에서는 달성도의 차이였다. 여기에서, 왜 저달성도의 성원이 형평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고달성도의 성원이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원리를 바꾸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해명이 없어 왔으나, 그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저달성도의 성원은 형평원리의 선택이 평등원리의 선택보다 비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타성원과 실험자에 대하여 바람직한 자기를 제시하기 위하여 형평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관리적 설명이고, 둘째는, 실험상황 그 자체에 형평원리의 선택을 공정으로 하는 규범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험자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규범적인 설명이다. 즉 애당초 실험상황 그 자체가 피험자에게 형평원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자에게 자기자신을 바람직하게 제시할 수만 있다면, 저달성도의 성원이 형평원리를 선택하려는 동기는 더욱 더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다시말하면, 규범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특정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있어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 존재하고, 개인은 그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되어져 왔고(예를들면, Deutsch, 1975 ; Lerner, 1975 ; Sampson, 1975), 인상관리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개인은 비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 해서 타자에게 바람직한 자기를 제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가지는 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동기화 되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되어져 왔다(예를들면, Shapiro, 1976 ; Reis & Gruzen, 1976). 더욱이, 이들 연구에 있어서의 절차와 결과를 재검토하여 개인의 판단을 사적·공적 측면과의 관련에서 고찰해보면, 개인이 보다 사적인 상황에서 스스로가 평가자가 되어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범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逆으로 개인이, 보다 공적인 상황에서 타자가 행한 선택에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비이기적이고도 인상관리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는 실험자 및 분배를 행하는 상대와의 관계의 상호작용이 예기되지 않는 상황은 제외되었고, 피험자의 판단이 대단히 사적인 상황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실험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형평원리의 선택을 피험자, 특히 저달성도의 성원이 행할 가능성은 꽤 강한 것이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즉, 종래의 연구에서는, 사적인 상황에 놓여진 개인의 반응은 이기적(저달성도의 성원은 평등원리를 선택하고, 고달성도의 성원은 형평원리를 선택할 것이다)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 왔으나, 그 결과는 고달성도의 성원과 저달성도의 성원 모두가 형평원리를 선택하여, 예측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

다. 이것은, 분배상황에 있어서의 타자의 존재의 유무가, 피험자의 이기적 또는 비이기적인 반응과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규범적 또는 인상관리적인 반응과 대응하고 있다고 고쳐 생각하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Greenberg(1983)는, 개인은, 성격특성으로서의 私的 自己意識(private self-consciousness)이 강하고, 상황적 조작에 의해 自己認識(self-awareness)가 높아진 조건에서는, 상황적 규범인 형평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逆으로 公的 自己意識(public self-consciousness)이 강하고, 타자와의 장래의 상호작용을 예기하는 조건에서는, 인상관리적으로 유효한 평등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식이나 자기인식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注意의 초점이 자기(self)의 사적인 측면이나 공적인 측면으로 향해짐으로써, 분배에 있어서의 규범적인 반응이나 인상관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피험자에게 분배의 판단을 내리게 한다든지, 상대와의 장래의 상호작용을 강하게 예기케 하는 상황에서 분배의 판단을 내리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연구에서의 실험절차가, 개인의 주의의 초점을 상황적으로 자기의 사적인 측면이나 공적인 측면으로 향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또 그것에 의해 분배원리의 선택의 판단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Greenberg(1983)의 실험에서는 평등원리가 상황적 규범으로서 받아들여 지지않고, 또 피험자는 보수를 평정하는 제3자이며, 보수를 받는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한 규범적인 반응과 인상관리적인 반응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장면에서의 분배원리의 선택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개인은, 상황적 규범의 요인과 인상관리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배판단을 하는 것으로, 어느 한 쪽만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같이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분배상황에서, 어떠한 분배가 그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가 하는 분배규범의 중요성과 아울러, 한 쪽의 분배량이 다른 쪽의 분배량을 결정짓는 상호의존의 관계 및 자기가 선택한 분배원리에 대한 상대의 평가의 문제를 고려하여 분배원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장면에 있어서 분배원리의 선택의 문제는, 규범적 요인과 인상관리적 요인의 어느 쪽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요인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분배상황에 있어서의 상황적 규범에 관해서는, 종래의 연구의 실험상황, 그 자체가 형평을 공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평원리가 많이 채택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분배상황

에 있어서 상황규범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실험자 측에서 피험자 측에 지불하는 보수의 지불방법을, 형평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상황 이외에, 평등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상황규범적 요인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인사관리적 설명으로는, 고달성도의 성원에 의한 평등원리의 선택 및 저달성도의 성원에 의한 형평원리의 선택이 각각 비이기적인 선택으로서 상대에게 인지되어 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연구가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는 명확하게 검증되어 지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이 타자로부터 어떻게 인지되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형평 또는 평등을 규범으로 하는 분배상황에서, 분배의 당사자가 고달성도 또는 저달성도 성원인 경우 어떠한 분배원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사적인 측면에 향하여져 있을 경우(실험 I) 및 자기의 공적인 측면에 향하여져 있을 경우(실험 II)로 나누어 규범적인 반응과 인상조작적인 반응을 구별하는 수단으로서 Greenberg(1983)의 자기의식과 자기인식에 관한 절차에 의거하여 각각 검토하려고 한다. 또, 형평원리 혹은 평등원리를 상황적 규범으로 하는 보수분배 상황에서, 고달성도 성원 혹은 저달성도 성원에 의한 분배원리의 선택행동이, 제 3자인 피험자에게 어떻게 인지되어 지는가에 대하여, 공정감, 이기성 및 타자에의 자기제시의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실험 III).

實 驗 I

본 실험의 목적은, 형평원리 혹은 평등원리를 분배공정의 상황적 규범으로 하며, 공동작업의 결과 두 사람 간에 달성도의 차가 있을 때, 私的自己意識이 강한 개인이 自己認識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떠한 분배원리를 선택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假說 형평원리 혹은 평등원리가 분배공정의 상황적 규범이며, 공동작업자인 두 사람 사이의 달성도에 차가 있을 때, 私的自己意識이 강한 개인이 높은 自己認識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달성도와는 관계없이 상황적 규범과 일치하는 분배원리를 택할 것이다.

方 法

被験者 K대학의 학생 196명이 自己意識測定値에 회답했다. 私的·公的의 自己意識 특점의 평균치에 의해 4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그 중, 私

的自己意識 得점이 평균치($\bar{X} = 23.671$)보다 높고, 公的自己意識 得점이 평균치($\bar{X} = 22.986$)보다 낮은 군에 속하는 24 명을 6 명씩 4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표 1> 참조).

<표 1> 두 차원 자기의식 평정치의 평균과 SD

차원	평정치	\bar{X}	SD
사적 자기의식		23.671	6.213
공적 자기의식		22.986	7.008

N = 24

自己意識測定值 Fenigstein, Sheier & Buss(1975)의 자기의식

측도치의 23 항목을 번역한 것을 S 대학의 학생(남녀 85명)이 회답했다. 척도항목에 대한 반응을 인자분석(주인자법, Varimax 회전)함으로써, 자기의식의 인자구조를 검토했다. 최저고유치 1.0의 조건에서 인자를 추출해 본 결과 3 인자가 추출되었다. 인자별로 인자부하량이 큰 순서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私的自己意識(제 1 인자), 公的自己意識(제 2 인자) 및 社會的不安(제 3 인자)은 각각 6 항목으로 구성되었다(5 단계 평정법).

<표 2> 자기의식 측정치의 문항에 대한 인자 부하량

문항의 요지	I	II	III	h^2
6 나는, 보통 나 자신의 일을 그다지 의식하고 있지 않다.	-.882	.161	.184	.841
11 나는, 나 자신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편이다.	.862	.237	.308	.894
1 나는, 때때로, 공상의 세계에서 헤매는 일이 있다.	.760	-.229	-.193	.667
16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의 감정에 다 주의를 쏟고 있다.	.744	.263	.179	.665
17 나는, 나 자신의 일에 그다지 파고 들지 않고 있다.	-.688	.259	.200	.580
2 나는, 내가 왜 그런짓을 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편이다.	.667	.237	.190	.537
23 나는, 나 자신의 처신에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다.	.318	.801	-.102	.753
3 나는, 나 자신이 주위의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신경을 쓰는 편이다.	-.292	.770	.026	.680
21 나는, 집을 나서기 전에는 꼭 거울을 본다.	.298	.742	.077	.645
8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경이 쓰인다.	.320	.735	.130	.660
4 나는, 내 기분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언제나 신경을 쓰고 있다.	.120	.663	.194	.492

문항의 요지	I	II	III	h^2
10 나는, 좋은 인상을 남에게 주려고 언제나 마음을 쓰고 있다.	.202	.642	.091	.461
9 나는, 새로운 상황에 젖어 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103	-.033	.794	.642
5 나는,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280	.330	.733	.725
15 나는, 낯모르는 사람과도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다.	.347	.260	-.713	.696
7 나는, 사소한 일에도 곧 당황해 버린다.	.275	.141	.701	.587
14 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하면 불안을 느낀다.	.246	.361	.644	.601
20 나는, 많은 사람의 사이에 있으면 긴장해 버린다.	-.072	.198	.603	.458
12 나는, 좀 떨어진 곳에서 나를 바카다 보는 기분이 될 때가 있다.	.299	.430	.348	.395
13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	.255	.395	.280	.299
18 나는, 나 자신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다.	.492	.325	-.309	-.443
19 나는, 남의 눈에 띄일까봐 신경을 쓰고 있다.	.378	.257	.346	.329
22 나는, 언제나 상대방의 몸가짐에 신경 쓰인다.	.237	-.385	.272	.278
因子寄與	4.949	4.585	3.789	13.323
累積寄與率 (100%)	21.5	19.9	16.5	57.9

節次 (1) 도입 : 이층의 별실(A실)에 또한 사람의 참가자가 있다고 알려준 후, 피험자를 B실에 안내했다. (2) 상황적 규범의 조작 : 두 가지의 상황기술편을 가지고 조작했다. 형평원리조건(경제적 가치감과 능률급 및 상대가 다른 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평등원리조건(연대감과 평등성 및 상대가 같은 과의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 본 시행 : 10분간의 숫자기입작업을 2회 시행케 했다. (4) 달성도의 조작 : 미리 조작되어진 작업수행 득점을 각 피험자에게 통고하였다. (5) 자기인식의 조작 : 별실(C실)로 이동케 하였다. 암실의 책상위 전면에는 얼굴만이 비쳐지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험자는 볼 일이 생겨 한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 질문지에 대한 해답

이 끝난 후에는 돌아가도 좋다는 것과, 또 한 사람의 참가자는 급한 일이 생겨 조금전에 돌아갔다는 것을 피험자에게 알려 주었다. (6) 질문지법에 의한 자기인식(5단계 평정법)의 조작의 검증 (7) 종속변인의 측정: 분배원리의 선택 (8) 실험 종료후의 면접: 실험자 및 상대학생과의 장래의 상호작용을 예상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상황적 규범과 달성도의 조작이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후, 실험의 참된 목적과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실험을 마쳤다.

實驗計劃 (1) 상황적 규범(형평원리, 평등원리)×(2) 개인의 달성도(고, 저)의 2 변인을 이용한 2×2의 요인계획으로, 4조건이 설정되었다.

結果 및 論議

操作의 有効性 면접 결과, 상황적 규범과 달성도의 조작의 유효성이 밝혀졌다. 또 주위의 초점의 방향(자기인식)에 관한 질문지(‘나’는 5점, ‘상대’는 1점의 5단계 평정척도)의 결과(〈표 3〉)에 대하여, 상황적 규범(형평, 평등)×달성도(고, 저)의 2

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주효과 및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F(1, 20) = 1.03, n.s.$).

즉 상황적 규범과 달성도에 따라 자기의 주위의 초점의 방향에 차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험자의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공적 측면보다 사적 측면에 향하여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分配原理의 選択 2자간의 보수분배원리로서 형평원리 또는 평등원리를 선택한 피험자의 수는 〈표 4〉와 같다. 이 자료를 對數線型 모델에 의해 분석

〈표 3〉 각 조건별 자기인식 평정치의 평균(실험 I)

달성도 \ 상황적 규범	형 평	평 등
	고	4.321 (2.107)
저	4.236 (2.210)	4.402 (2.531)

$N = 24$, ()는 SD

〈표 4〉 조건별 보수분배원리 선택의 인원수(실험 I)

	상황적 규범		형 평		평 등	
	달성도	형 평	고	저	고	저
선택원리	형 평	4	5	0	2	
	평 등	2	1	8	4	

$N = 24$

을 한 결과, (상황적 규범)×(분배원리)의 상호작용($U_{13} = 0.685, SE = 0.276$,

$P < .05$)만이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 즉 상황적 규범과 일치하는 선택이 행하여 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형평원리조건에 있어서는 형평원리가, 평등원리조건에 있어서는 평등원리가 각각 선택되었다고 하는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본 실험에서 처럼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사적인 측면에 향하여진 상황에서 분배원리의 선택의 판단이 요구될 때, 판단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 의해 내재화되고 있었고, 사회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규범적 반응을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自己焦點(self-focus)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와같은 심적 상태가 생성되면 基準適合過程이 생기며,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 적절한 행동의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同調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Duval & Wicklund (1972), Wicklund (1975) 등에 의해 이론화 되고 있다. 본 실험의 결과도 이와같은 기준적합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더우기, 본 실험에서는 평등원리를 규범으로 하는 상황도 설정함에 의해, Greenberg (1983)에게서 보여졌던 형평원리의 채택에 더하여 평등원리의 채택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형평규범을 공정가치로 하는 실험에서 사적인 상황에 두어진 피험자는, 실험상황의 요구에 따라 형평원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은 이기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Jones & Pittman (1982)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장면에서 가장 공정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상지우려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적인 상황에서의 저달성도 성원의 일관된 형평원리선택이라고 하는 종래의 연구결과는 형평원리를 공정으로 하는 상황만을 이용한 연구 Paradigm에 의해 기인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實 驗 II

본 실험의 목적은, 평등원리 혹은 공평원리를 분배공정의 상황적 규범으로 하며, 공동작업의 결과 두 사람 간에 달성도의 차가 있을 때 公的自己意識이 강한 개인이 상대방과의 장래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분배원리를 선택하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假說 형평원리 혹은 평등원리가 분배공정의 상황적 규범이며, 공동작업자인 두 사람 사이의 달성도에 차가 있을 때 公的自己意識이 강한 개인은, 상대방과의 장래의 상호작용을 예상케 하는 상황에서 상황적 규범과는 관계없이 달성도에 의한 비이기적인 분배원리를 택할 것이다.

方 法

被驗者 실험 I에서 4개 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사적자기의식 특점이 평균치보다 낮고, 공적자기의식 특점이 평균치보다 높은 군에 속하는 43명 중 24명이 4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節次 실험 I과 다음과 같은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절차였다. 즉 (1) 도입시에 옆방에 분배의 상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2) 작업시행은, “개시”의 신호가 두 방에 들릴 수 있도록 두 방의 문을 열어 놓고 했다. (3) 별실에로의 이동과 거울을 사용하는 자기인식의 조작 대신 질문지 해답 후, 옆방에 가서, 상대와 분배방법에 관해 의견을 나누도록 알려 주었다. 다만, 실험자는 급한 일이 생겨 한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울터이니, 실험이 끝난 후에는 돌아가도 좋다고 말해 두었다.

實驗計劃 실험 I의 실험계획과 동일하였다.

結果 및 論議

操作의 有効性 면접의 결과, 상황적 규범과 달성도의 조작의 유효성이 밝혀졌다. 또 상대와의 상호작용만을 예상하고, 실험자와의 상호작용은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또 주의의 초점의 방향(자기인식)에 관한 질문지(‘상대’는 5점, ‘나’는 1점의 5단계 평정척도)의 결과 <표 5>에 대하여 상황적 규범(형평, 평

등)×달성도(고, 저)의 2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주효과 및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F(1, 20)$

$=1.27, n.s.$). 즉 상황적 규범과 달성도에

따라 자기의 주의의 초점의 방향에 차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험자의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사적 측면보다 공적 측면에 향하여져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

分配原理의 選択 2자간의 보수분배원리로서 형평원리 또는 평등원리를 선택한 피험자의 수를 조건별로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이 자료를 對數線型

<표 5> 각 조건별 자기인식 평정치의 평균(실험 II)

달성도 \ 상황적 규범	형 평	평 등
고	4.423 (.2.237)	4.520 (2.338)
저	4.362 (2.002)	4.426 (2.111)

$N = 24, ()$ 는 SD

〈표 6〉

조건별 보수분배원리 선택의 인원수(실험 II)

	상황적 규범		형 평		평 등	
	달성도	고	저	고	저	
선택원리	형 평	2	4	0	5	
	평 등	4	2	6	1	

$N = 24$

모델에 의해 분석한 결과, (달성도) × (분배원리)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U_{23} = 0.685$, $SE = 0.276$, $p < .05$). 즉 고달성도 조건에서는 평등원리를, 逆으로 저달성도 조건에서는 형평원리를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공적 측면에 향하여졌을 때, 상대에게 바람직한 인상을 주려는 비이기적이고도 인상조작적인 선택이 행하여졌다. 실험자에게 대한 인상조작적인 동기는 제거되고, 공동분배자에게 대한 인상관리적인 동기만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본 실험의 결과는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의 피험자의 실험자에게 대한 자기제시의 문제와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實 驗 III

능률급을 기준으로 하여 두 사람분의 보수가 지불되어 지는 형평원리규범조건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여 두 사람분의 보수가 지불되어 지는 평등원리규범조건의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각 상황에서 고달성도의 성원의 형평원리 또는 평등원리 선택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서 그 장면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 공정감 이기성 및 타자에게 대한 자기제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또 그들의 평가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假說 (1) 상황적 규범에 적합한 선택은 그렇지않은 선택보다 공정하다고 평가되어질 것이다. 즉 형평원리규범조건에 있어서는, 평등원리의 선택에 비해 형평원리의 선택이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되고, 평등원리규범조건에서는 형평원리의 선택에 비해 평등원리의 선택이 보다 공정하다고 평가되어 질 것이다. (2) 고달성도 성원의 평등원리선택 및 저달성도 성원에 의한 형평원리선택은, 고달성도 성원의 형평원리선택 및 저달성도 성원에 의한 평등원리선택보다 (a) 공정하고, (b) 이기적이고, (c) 타자에의 자기제시를 의식한 선택이라고 평가되어질 것이다.

方 法

被験者 심리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여자 전문대학생 176명으로, 44명씩 무선적으로 4개의 실험조건에 할당되었다.

質問紙 각 조건에 사용된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 황)

당신은 선생님께서로부터 부탁을 받아, 아르바이트 학생을 감독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려고 온 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A군, B군). 작업의 내용은 2대의 기계를 사용하여 컴퓨터 카드에 1에서 9까지의 수자를 찍어 넣은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업시간은 1시간 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르바이트의 보수에 대하여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1) 「카드 1매에 2원으로, 두 사람이 한 조로, 처리한 카드의 매수에 따라 지불하기로 하겠습니다」: 형평원리규범 조건, (2) 「한 사람에 1100 원으로, 한 조에 합계 2200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평등원리규범 조건, 「그러나, 지불하는 두사람분의 보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두사람이 상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A군과 B군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한 시간의 작업이 끝나고 두사람이 처리한 카드의 매수를 헤아려 보니, A군이 450매(저달성도조건), B군이 650매(고달성도조건)으로, 합계 1100매였습니다. 당신은, 2200원의 돈을 준비하고, 두사람이 서로 상의하여 이 2200원의 분배방법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서로 상의한 끝에, (1) A군 (혹은 B군)은, 「균등하게 1100원씩 나누겠어요」: 평등원리선택조건, (2) B군 (혹은 A군)은, 「450 : 650의 비율로 나누겠어요」: 형평원리선택조건 라고 말하였습니다.

獨立要因 본 실험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적 규범: 보수의 지불방법에 따라, (a) 능률급을 기준으로 하여 두사람분의 보수가 지불되는 형평원리규범조건과, (b)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여 두사람분의 보수가 지불되는 평등원리규범조건인 두 가지의 규범상황을 설정하였다. (2)달성도: (a) 고달성도 성원은 650점이고, (b) 저달성도 성원은 450점의 달성도였다고 조작 보고했다. (3) 분배원리: 선택되어진 분배원리에 따라, (a) 형평원리선택조건과, (b) 평등원리선택조건인 2가지의 조건을 설정했다. 이상 3변인 중, (1) 상황규범과 (2) 달성도를, 피험자간요인, (3) 분배원리를, 피험자내요인으로 하여 $2 \times 2 \times 2$ 의 8 실험조건을 설정하였다.

從屬要因 각 조건의 아르바이트 학생의 분배원리선택행동에 대하여, 다음의 4 항목을 종속변인으로서 측정하였다. (1) 공정감: '대단히 공정'을 7, '대단히 불공정'을 1로 하여 7점 척도를 사용했다. (2) 이기성: '대단히 이기적'을

7, '대단히 비이기적'을 1로 하여, 7점 척도를 사용했다. (3) 타자에게 대한 자기제시 : (a) 분배의 상대를 어느정도 인식하여 분배원리를 선택했는가, (b) 관찰자인 제 3자를 어느정도 의식하여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 '대단히 의식했다'를 7,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를 1로 하여 7점 척도를 사용했다.

節次 먼저, 각 피험자에게 4조건(4종류)의 질문지 중 한가지를 무선적으로 배부하였다. 다음에 그 질문지에 기술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상상하여 질문지에 회답하도록 일러 주었다. 질문지에 대한 기입이 끝나고, 질문지를 회수한 후, 마지막으로 본 실험의 목적과 내용을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실험을 마쳤다.

結果 및 論議

(1) 公正感 공정감에 대한 평정의 평균치를 각 조건별로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이 자료를 (상황규범)×(달성도)×(분배원리)의 3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상황규범의 주효과 [$F(1, 168) = 6.032, p < .05$], 규범×달성도의 상호작용 [$F(1, 168) = 11.536, p < .01$], 분배원리의 주효과 [$F(1, 168) = 23.174, p < .01$], 상황규범×분배원리의 상호작용 [$F(1, 168) = 22.493, p < .01$] 및 달성도×분배원리의 상호작용 [$F(1, 168) = 65.523, p < .01$]에 유의미한 차가 검출되었다. 즉 주효과에서 평등원리규범조건의 선택은 형평원리규범조건의 선택보다 공정하다고 평정되고, 고달성도 성원의 선택은 저달성도 성원의 선택보다 공정하다고 평정되고, 형평원리의 선택은 평등원리의 선택보다 공정하다고 평정된 것이 밝혀졌다. 또 1차 상호작용에 대하여 단순효과검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이 밝혀졌다. 즉 (a) 상황규범×달성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형평원리규범조건에 있어서의 저달성도 성원의 분배가 가장 불공평하

<표 7> 각 조건별 공정감 평정치의 평균

	원 리	고달성자의 선택		저달성자의 선택	
		형 평	평 등	형 평	평 등
상황규범	형 평	5.163 (1.091)	4.977 (.873)	5.884 (1.191)	2.953 (.331)
	평 등	4.419 (.877)	5.674 (1.014)	5.791 (1.356)	4.512 (1.135)

$N = 176, ()$ 는 SD

다고 평정되었다. (b) 상황규범×분배원리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형평원리의 선택은, 평등원리규범조건에 비해 공평하다고 평정되고, 평등원리의 선택은,

형평원리규범조건에 비해 평등원리규범조건에서 보다 공평하다고 평정되었다. 또 형평원리규범조건에서의 평등원리의 선택은 가장 불공평하다고 평정되었다. (c) 달성도×분배원리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고달성도 성원에 의한 평등원리의 선택이 형평원리의 선택보다 공정하고, 또 저달성도 성원에 의한 평등원리의 선택이 형평원리의 선택보다 공정하다고, 각각 평정되었다. 이 결과로, 가설 (1)이 지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의 지불방법과 일치된 분배원리의 선택 즉 상황규범에 따른 행동이 선택의 정당성을 지지해 주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것은 분배공정의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대해서 어떤 보수의 지불방법을 택할 것인가가, 그 분배상황에서의 공정규범을 규정하는 결정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규범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그것외에도 2자간의 관계성 즉 친숙성의 정도 등의 요인이 분배원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Deutsch(1975), Leventhal(1975), Lerner(1975) 등이 지적하고 있어, 보수의 지불방법 이외의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본 실험에서는, 상황설정에서 2자간의 관계는 서로 낯선관계라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형평원리의 선택이 평등원리의 선택보다 공정하다고 평정된 결과를 합쳐 생각해 보면, 본 실험에서는 2자간의 관계성이 형평을 공정으로 하는 편향(bias)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2) **利己性** 이기성에 대한 평정의 평균치를 각 조건별로 나타낸 것이 <표 8>이다. 그 자료에 대해 3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달성도×분배원리의 상호작용 [$F(1, 168) = 253.988, p < .01$]이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 즉 고달성도 성원에 의한 평등원리의 선택 및 저달성도 성원에 의한 형평원리의 선택이 각각 다른 원리의 선택보다 비이기적이라고 평정되었다.

<표 8> 각 조건별 이기성 평정치의 평균

원 리		고달성자의 선택		저달성자의 선택	
		형 평	평 등	형 평	평 등
상황규범	형 평	4.930 (1.333)	2.814 (.621)	3.070 (1.272)	5.186 (1.337)
	평 등	5.116 (1.072)	2.488 (.502)	2.419 (.722)	4.814 (1.221)

$N = 176, ()$ 는 SD

(3) 他者에게 대한 自己提示 : (a) 공동분배자 및 (b) 관찰자에게 대한 자기제시에 대하여 각 조건별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 <표 9> 및 <표 10>이다. 각각의 자료를 3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a)·(b) 모두 달성도×분배원리의 상

<표 9>**공동분배자에 대한 자기제시의 평정치의 평균**

	원 리	고달성자의 선택		저달성자의 선택	
		형 평	평 등	형 평	평 등
상황구분	형 평	4.233 (1.192)	5.000 (1.233)	4.953 (1.227)	3.930 (1.122)
	평 등	3.860 (1.013)	4.698 (1.139)	5.000 (1.198)	4.209 (1.031)

$N = 176$, ()는 SD

<표 10>**관찰자에 대한 자기제시의 평정치의 평균**

	원 리	고달성자의 선택		저달성자의 선택	
		형 평	평 등	형 평	평 등
상황구분	형 평	4.047 (1.077)	4.553 (1.179)	4.968 (1.236)	3.628 (1.032)
	평 등	4.326 (1.062)	4.767 (1.318)	4.814 (1.393)	3.721 (1.046)

$N = 176$, ()는 SD

호작용 [$F(1, 168) = 85.133, p < .01$], [$F(1, 168) = 114.416, p < .01$]이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 즉 고달성도 성원에 의한 평등원리의 선택 및 저달성도 성원에 의한 형평원리의 선택이 각각 다른 선택보다도 타자를 의식한 선택이라고 평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가설(2)의 (b)와 (c)가 지지되었다. 이것은, 먼저 달성도에 따라 분배원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이기성과 비이기성의 차원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 또 비이기성과 자기제시와도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공정감의 평정에 있어서도, 이기성 및 자기제시의 평정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은 달성도×분배원리의 상호작용이 검출되어 가설(2)의 (a)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공정감과 비이기성이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비이기적인 분배를 행할 수만 있다면, 이기적인 분배를 행할 때에 비해 공정한 분배를 행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보수분배 장면에서 상황에 적합한 분배원리를 선택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자기제시를 할 수 있는 비이기적인 분배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제3자의 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綜 合 論 議

분배원리선택에 대한 공정성의 평가는 상황적 규범과 선택의 비이기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고 있다. 보상을 받는 분배의 당사자가 상황적 규범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비이기적이고도 인상관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의 주의의 초점이 자기의 사적 측면에 향하여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측면에 향하여져 있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들 규범적인 반응과 인상조작적인 반응이 뒤섞여 있어 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달성도 성원에 의한 일관된 형평원리의 선택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형평원리를 상황적 규범으로 하는 종래의 연구 paradism에 있어서는 사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저달성도 성원의 실험상황에 적합한 규범의 선택과 逆으로 상대방과의 장래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공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비이기적인 분배원리의 선택을 일관하여 형평원리의 선택이라고 해석해 왔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타자의 개재가 없는 사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은 이기적인 선택일 것이라는 종래의 예측과는 逆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분배상황에 있어서의 개인의 행동의 이해에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 I 과 실험 II에서 규범적인 반응과 인상조작적인 반응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격특성적인 자기의식의 통제 및 상황적인 자기인식이 함께 조작되었다. 성격특성적인 자기의식과 상황적인 자기인식을 병행하는 것에 의해 주의의 초점을 조작하는 것의 가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Scheier (1976)의 연구보고가 있으며, 앞에서 말한 Greenberg (1983)의 실험결과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의식 및 자기인식도 이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처럼 성격특성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과의 관련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군이 설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상황적 규범과 달성도의 조작은 이들 성격특성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과의 관련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져오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자기개념과 분배공정과의 관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실험 III에서, 분배에 있어서의 상황규범 및 분배원리 선택에 있어서의 이기성과 자기제시의 요인은 분배공정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앞에서 말한 분배원리의 주효과처럼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변인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달성도의 주효과가 검출되어, 고달성도 성원의 선택이 저달성도 성원의 선택보다 공정하다고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던 점이다. 따라서 상황규범과 달성도의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검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질문지의 상황설정이나 요인조작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특정상황에서의 분배원리의 선택을 제3자가 평정하고, 또 장면을 상정한 질문지요인 실험이었기 때문에 분배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현실장면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에 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관해서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기대되어 진다.

참 고 문 헌

- Curtis, Rebecca C.(1979). Effects of knowledge of self-interest and social relationship upon the use of equity, utilitarian, and Rawlsian principles of allo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165-175.
- Deutsch, M.(1975). Equity, equality, and need :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37-149.
- Duval, S. & Wicklund, R.A.(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 Academic Press.
- Fenigstein, A, Scheier, M.F. & Buss, A.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4, 522-527.
- Greenberg, J. (1983). Self-image versus impression management in adherence to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 :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19.
- Jones, E.E. & Pittman, T.S.(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Hillsdale, N.J. : Erlbaum.
- Lerner, M.J.(1982).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20.
- Reis, H.T. & Gruzien, J. (1976). On mediating equity, equality, and self-interest : the role of self-presentation in social-ex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487-503.

- Sampson, E.E. (1975). On justice as equality. *Journal of Social Issues*, 31, 3.
- Shapiro, E.G. (1975). Effect of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on reward allocation in dyads: equity or equa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5. 873-880.
- Scheier, M.F. (1976). Self-awareness, self-consciousness, and angry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44, 627-644.
- Wicklund, R.A. (1975). Objective self-awareness.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New York: Academic Press.
- 弓野憲一. (1981). 對數-線型모델에 의한 질적 data의 해석과 그것을 위한 Basic Program. 靜岡大學教育學部研究報告, 32, 169-215.

ABSTRACT

Effects of Impression Management Versus Situational Norm upon the Choice of the Reward Allocation Principles in Dyads

Choi, Kwang Sun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 Bu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ttentional focuses directed toward either the public or the private aspects of the self upon the choice of the reward allocation principles in dyads, and the effects of the situational norms (equity or equality), individual's task performance, and his/her choice of distribution principles (equity or equality) upon the bystander's cognition and evaluation of perceived justice of the chosen distribution principles, self-interest of the contributor, and his/her assumed self-presentation toward the coworker and the supervisor (bystander) in a reward distribution situation.

Exp. I and Exp. II were conducted under which the attentional focus of each subject was directed either (1) toward the private aspects of the self or (2) the public aspects of the self. In both of the two experiments 24 subjects were allocated in one of the four conditions where he/she is either a high or low performer and is performing either in the (1) equity norm situation or (2) in the equality norm situation. They were asked to choose one of the two allocation principles (equity or equality) for the dyad's reward distribution.

The subjects of Exp. III were 176 female college students. After reading the description of one of the four reward distribution conditions, in which the situational norms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ntributors were controlled, the subject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In Exp. I subjects, whose attentional focus was directed toward the private aspects of the self, chose distribution principles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norm of the respective conditions. In Exp. II subjects, whose attentional focus was directed toward the public aspects of the self, chose the distribution principles according to the non-self serving, self-presentational strategy despite the respective situational norm.

The results of Exp. III showed that the choices of the distribution principles which accord with the situational norms were evaluated as fairer than the unaccorded choice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high performer's choice of equality principle and low performer's choice of equity principle were evaluated as fairer, less selfish, and higher in assumed self-presentation toward others than the other alternativ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manipulated in the present study.